

전국개인택시-연합회신문

신년호 | 2016년 1월 27일

발행인 유병우 회장
 편집인 오홍렬, 이성운
 발행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편집대행 (주)석유가스신문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길 55 | 전화 : 02)557-7351~2 | 팩스 : 02)554-7359

〈신년사〉

16만4천 조합원 업권보호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터

유병우 회장 16개 시·도 이사장과 함께 운송환경 개선에 역량 집중 다짐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4천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미년 한해가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지고 병신년의 태양이 힘차게 솟아 올랐습니다.

지난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다사다난 했습니다.

메르스 확산으로 온국민이 공포에 떨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민주화 거산 YS 전대통령이 서거하므로써 한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금수저 vs 흙수저 구분으로 우울한 청춘들이 양산되어 계층간 세대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격변 속에서도 우리 연합회는 지난 한해에도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부가 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우리 연합회는 일몰 기한 연장을 적극 노력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택시용LPG(부탄)에 과세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해주는 세제지원 법안과 차량등록에 따른 취득세 감면 100분의 50에 대하여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켰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으로서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적극 추진한 결과 국회를 통과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령안'을 발의하여 유가보조금 지급기간(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으며, '대기환경보

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택시가 경유택시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10년 또는 16만km의 배출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성과는 조합원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합 여러분! 특히 올해는 제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는 해여서 국내 정치상황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국 16개 시·도 이사장들과 함께 긴장의 끈을 놓지않고 업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승합택시도입, 경유택시 활성화를 통하여 수익증대와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붉은 원숭이띠는 적극적인 활동과,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기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조합원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용대출보다 우대받는 오너드라이버 전용 대출 현대캐피탈 자동차담보대출

4000만원
 +
 ↓
 ₩
 +
 0%
 ₩
 최고한도 4,000만원 최저금리 연 5.9% 수수료 0원



상품안내

- 전화 한 통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 가능
- 차량담보가치를 활용한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
- 한도 : 최저 300만원 ~ 최고 4,000만원
- 금리 : 최저 연 5.9%부터(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 기간 : 12/24/36개월 중 선택 가능
- 근저당 비용 : 없음
- 취급·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 연체 이자율 : 19 ~ 29%(대출금리별 차등 적용)

혜택

- 개인택시 기사님을 위한 우대금리 적용 (한시적 적용으로 금리 변경 가능)
- 방문 없이 전화로 대출 가능(심사기준 완화)

대상고객 및 차종

- 운행 이력 1년 이상의 개인택시 사업자
- 출고 이후 10년 이내의 본인 소유 택시
- 기타 본인 소유 차량 담보 가능(승용, RV, 승합, 상용 등)
- 설정 및 압류 차량인 경우, 해지 후 대출 가능

이용방법

- 현대캐피탈 전화상담 : 1899-6282 (상담 시 전국 개인택시 공제 조합원 여부를 상담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 대상고객, 차종,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확인 요망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준법감시심의필 제150708-101043호(2015. 07. 09)

INTERVIEW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강석훈 의원 (새누리당)

택시 업계의 어려운 상황 해결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연합회 신문에서는 오는 4월로 임기를 마치는 19대 국회 4년동안 우리 택시업계에 관련된 입법활동을 적극 추진해준 기획재정위 간사 강석훈 의원과 국토교통위 간사 정성호 의원을 선정, 신년 인터뷰를 가졌다. 강석훈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을)은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택시업계의 현안문제인 개인택시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세를 계속해서 면제받을 수 있게 일몰기한을 3년 연장했다. 또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중 리터당 23원을 경감해주는 조항 역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편집자 주>



▲ 조세특례대상 일몰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법률 개정과 개인택시사업자 차량구매 부가가치세도 3년 연장했다고 설명하는 강석훈의원.

Q 유능한 경제학자이자, 대학교수로 인정받는 삶을 살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정치를 하며 갖고 계신 본인만의 철학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시골 농촌의 넉넉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네 살 때 가족을 남겨둔 채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셨고, 우리 가족들은 그 후 7년이 지나서야 서울 변두리의 조그만 집에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학교 외 공부는 꿈꾸기 어려운 상황이라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대학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의 경제학 박사과정도 모두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기회와 희망이 줄고, 절망과 좌절이 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를 '희망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로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이 제가 정치인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와 철학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Q 의원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호프노믹스'를 말씀하신 바 있습

니다. '희망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원님의 정치철학을 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A 호프노믹스는 희망(HOPE)과 경제(ECONOMICS)를 합친 용어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를 만들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희망'은 '누구나 노력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것이라는 희망', '나보다는 내 자식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말합니다.

첫 번째 희망은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 비로소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희망을 위해서는 경제가 활성화되어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희망을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착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아이디어가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창조경제를 꽃피워야 합니다. 이와 같은 희망을 모든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 '호프노믹스'입니다.

호프노믹스의 실현을 위해 작년에는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습니다. 제 정치적 신념인 '희망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실질적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호프노믹스의 첫 번째 희망인 '누구나 노력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Q 택시업계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택시업계와 연관성이 있는 중요한 세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조세소위원장으로 직접 세법 심사를 주도하셨는데요,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아울러 통과된 법안 중에서 택시업계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소개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A 특히 택시업계와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일몰이 도래하는 세제혜택 조항들을 대부분 연장해 계속해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먼저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간이고세자인 개인택시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세를 계속해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당초 정부는 간이고세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조세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들어 반대했으나,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세제혜택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를 95%감면해 주는 것도 회사택시 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체계 개선과 감차재원 활용 등을 감안,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3년 더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택시업계의 가장 큰 부담은 연료비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중 리터당 23원을 경감해주는 조항 역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의 경우 LPG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교육세, 판매부과금 합계액 리터당 221원을 모두 조세경감과 유가보조금을 통해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택시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택시 수는 증가하고 있어 택시업계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택시업계 종사자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택시업계는 공급과잉 심화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택시감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국토교통부의 주도 하에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적절한 감차목표를 설정하고 충분한 보상재원이 마련되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 사업자들이 용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며,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루어져야 감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정부가 적절한 제도와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Q 앞으로 16만 4천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어려운 사업여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의 발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택시에서 승객들과 사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도 자주 하실 텐데요, 희망적인 이야기 많이 나누실 수 있도록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사업상 어려움을 해소하여 즐겁게 일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INTERVIEW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초심 잃지 않고 택시업계 강력히 대변 하겠습니다

연합회 신문에서는 오는 4월로 임기를 마치는 19대 국회 4년동안 우리 택시업계에 관련된 입법활동을 적극 추진해준 기획재정부 간사 강석훈 의원과 국토교통위 간사 정성호 의원을 선정, 신년 인터뷰를 가졌다.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동두천)은 자타가 인정하는 택시정책통이다. 지난 17대 초선 시절부터 택시업계 및 교통단체와 인연을

맺은 이후 19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및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택시 및 교통관련 중요법안은 모두 정성호의원의 손을 거쳐 처리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 말 19대 국회에 상정된 법안 중 콜센터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가능케하는 '택시발전법', 불법 유사운송행위를 근절하는 '우버금지법' 등 택시업계 관련 법안 입법에 힘썼다. <편집자 주>

Q 20대 총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택시를 비롯한 교통관련업계로서는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택시업계의 현안 법안이 대거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업계를 위해 빛나는 의정 활동을 해오신 정의원님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16만 개인택시사업자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위 간사로서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 16개 상임위 중 법안처리 건수 1위라는 성과를 얻었고 상임위 100%출석(국회의원 300명중 단 2명)으로 언론으로부터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그 결과 2015 우수의원상, 2015 동료의원 선정 입법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A 민생입법 추진과 민생예산 심의라는 국회의원 본분에 충신했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한 것 뿐인데 과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교통 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은 과감히 정비하여 택시가 일할 맞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Q 정의원님께서 택시업계에 유별나게 관심이 많으시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A 지역구인 양주만해도 개인택시 276대, 법인 109대 등 약 400여대에 가까운 택시가 운행 중입니다. 택시 종사자 여러분들은 민심의 척도이자 서민 삶의 대변자들입니다. 이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다보면 민심이 들리고 민생이 보입니다. 17대부터 택시업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한 때 중산층의 표본

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택시가 쇠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과거 20~30년전만 해도 개인택시 한 대 가지고 있으면 중산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호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벌이도 힘들고 몸도 피곤한 직업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택시가 지나치게 과잉공급 되었습니다. 지자체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증차공약이 원인입니다. 둘째, 콜밴, 자가용 불법운송행위 등 유사여객운송이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택시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해법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라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Q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택시업계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간 택시 종사자 및 사업주를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신 법안이나 정책이 무엇인지요?

A 국토위 간사이자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택시 업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업계보호 등을 위한 법안 처리에 주력했습니다. 작년 4월 유사택시 운송행위 불법영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우버 금지법'을 처리했고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택시시장 혼란을 가져왔던 우버 택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콜센터에 택시 호출서비스 및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근거마련을 골자로 하는 '택시발전법'(박수현 의원, 8.11 공포)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영세한 택시산업 활성화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콜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왔으나 작년 초 지



▲ 양주시 의정보고회에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정성호 의원.

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지원금을 삭감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택시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택시발전법'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강력한 의지로 관철시켰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5월 11일에 발의되어 한달여만에 상임위를 통과, 7월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32.7%에 그치고 있는 것을 비취볼 때 3개월만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Q 향후 택시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각하고 계신 비전이나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A 택시 운전기사는 배차 후 모든 영업이 협소한 차량 내에서 장시간 이루어져 피로누적, 용변 등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마땅한 휴식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택시 운전기사 휴식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예산 지원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업계가 많은 부담을 안고있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제도' 등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정비하여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운송원가의 30% 이상 차지하는 LPG택시연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량연비 개선 등을 관계부처 및 자동차사와 협의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끝으로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16만4천 개인택시사업자 여러분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전문가들은 국·내외 경제가 매우 어려울것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택시 업계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정성호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개인택시사업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소망하는 모든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Q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반드시 당선하여 큰 꿈 키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랜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속한 보상감차 실현하는 해가 되자

16개시·도 조합이사장 새해소망 밝혀

전국 16개 시·도조합 이사장들은 2016년 새해를 맞아 16만 4천 조합원들의 업권 보호를 첫번째 업무 추진 목표로 정했다. 또한 택시의 시장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보상감차실현을 다짐했다.

보상감차는 택시공급 과잉을 해소, 택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합회와 16개 시·도 이사장이 합심하여 입법을 추진해 2014년 1월 28일 '택시 운송업의 발전법'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보상감차가 부진해 올 추진계획중 현안으로 꼽혔다.

경영난 극복을 위해 택시 요금 적기 실현하고 업계 스스로도 끊임없는 변화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신뢰 회복을 다짐하기도 했다. <편집자 주>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연수 이사장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택시의 어려움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오늘날 택시의 어려움은 하나의 산업으로서 존폐의 위기에 서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택시산업은 사회적으로 여객수송 담당에서 빠져서는 안 될 만큼 그 역할이 막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렌터카 등 택시시장 틈새를 노리는 유사택시영업들이 속출하면서 택시의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었고, 택시업계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뾰족한 정책대안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서울 5만 조합원님들을 비롯해 전국의 택시가족들이 늘 행복할 수 있도록 새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상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박권수 이사장



존경하는 전국 16만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우리 택시업계는 택시발전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택시문제 해결의 작은 희망을 안고 출발하였으나 택시감차 및 요금인상 등에 대해서는 진행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반면, 개인택시 차량 구입 시 부가세 면제 및 5년경과 택시 일반인 판매 허용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16만 개인택시 가족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택시업계는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국 16만 개인택시 가족이 지혜와 힘을 모아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한다면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올 한해 희망을 위해 더욱 땀 흘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순락 이사장



존경하는 전국개인택시 조합원 및 대구개인택시 조합원 여러분! 새로운 2016년 한 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구조합은 병신년 새해에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조합 특별회계금으로 설립한 직영 충전소를 출범시키고, 현재 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충전소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복지혜택과 권리향상 등의 밝은 미래를 그리며 더욱 발전하는 대구조합이 되기 위하여 이사장인 저와 임원, 대위원, 조합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업계의 어려운 현황을 헤쳐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 벽사진경의 상징인 원숭이 해의 기운을 받아 항상 기쁜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승일 이사장



전국 16만 개인택시가족여러분! 9천여 인천개인택시여러분!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연합회에서 16만 개인택시종사자들의 업권보호를 위하여 추진된 각종 법안들이 국회를 모두 통과 하는 성과를 가지고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해 택시발전법에 근거한 택시요금인상이 택시사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상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택시감차가 조합원님들의 뜻에 맞추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택시사업자들의 권익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한 해 이길 소망하며 조합원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문옥 이사장



존경하는 전국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 했던 2015년이 어느덧 저물고 2016년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택시업계의 현실은 어렵고 많은 아쉬움이 존재하는 한해였지만 전국 개인택시 염원을 담아 줄기차게 택시 세제지원 법안의 연장을 건의한 결과 지원기한이 연장되어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품고 새해를 시작해 봅니다.

올 한해도 우리 개인택시의 업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20대 총선에서 우리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택시 정책을 발굴하여 건의하고, 택시 요금 조정 2년 정례화 실현, 감차보상제도 개선과 실질적 감차 실현을 위한 활동, 불합리한 택시 제도 개선 등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들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업계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진정성 있는 조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백형선 이사장



존경하는 조합원님! 조합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현재 우리의 업계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각종 규제 등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끊임없는 변화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이상의 기대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 승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친절한 개인택시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노력만이 어려운 사태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조합원이 주인 되는 조합', '조합원을 섬길 줄 아는 일꾼'임을 자처하면서 조합원의 수익증대와 복지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받는 조합을 만들겠습니다.

개인택시 가족여러분, 2016년에는 모두가 크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강원도개인운송사업택시조합 김주원 이사장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승객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해, 택시연료에 사용되는 LPG 및 경유 유가보조금의 지속적인 지원과 차량 구입 시 부가세 면제기간을 2년 연장 하는 등 조합원의 이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올 한해도 부단히 정진하여 택시요금 인상 및 블랙박스 설치 건의, 또한 택시감차에 대한 감차보상금의 현실화 등을 실행하여 우리의 업권 보호와 권익을 신장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6년 새해에는 빛나는 태양처럼 조합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마다 번창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최현태 이사장



지난해 우리의 업권 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열심히 함께 달려 오신 조합원 가족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택시산업의 세제지원 법령개정을 위하여 총력 대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용차량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2년 연장시켰으며, 5년경과된 LPG택시 차량의 일반인에게 판매를 가능케 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과 많은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업계의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의 업권보호를 위해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감차보상의 현실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관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LPG가격의 현실화를 위하여, 제조 및 수입업체의 횡포를 항상 감시하며, 수입사와 정유사의 택시연료 담합행위에 단호하게 대처 하고 소비자에 대한 가격결정의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해경 이사장



존경하는 16만 전국개인택시 가족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올 미년이 지나 희망찬 병신년 새해 아침이 힘차게 밝았습니다.

병신년 새해에는 개인택시가족여러분들의 업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그 어떤해보다도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택시총량 초과 지역에서는 감차계획 수립에 따른 감차를 2015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무엇보다 실거여가를 기준으로한 감차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조정주기를 2년 주기로 정례화된만큼 택시요금 인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택시 할증시간대 확대 및 연장과 함께 주말·공휴일 할증제도 도입 등 다양한 택시요금 할증요금제도 등도 도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올해는 4월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새로운 정치의 희망으로, 확 바꾸어보겠다는 열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택시에 대한 희망과 꿈을 이룩합니다.

전라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박상익 이사장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 지시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차량 대차폐차시 차량구입 부가세 면제와 2017년부터 5년 경과된 LPG택시를 일반인에게 양도가 가능토록 한 것은 전국 조합원님들이 일치단결하여 한 목소리를 낸 결과이며, 2016년에는 경유택시 운행 건, LPG연료부가세 지급 건, 택시 차량제 폐지 건 등 여러 현안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나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 됩니다. 그러나 조합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다면 연합회장님을 비롯하여 전국 이사장들은 총력을 기울여 택시 현안문제들을 풀어 나갈 것입니다.

조합원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만큼 큰 기쁨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라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여근하 이사장



전국의 모든 개인택시 조합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해이니 만큼 우리 업계의 화합된 모습과 단결력으로 개인택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첫 번째 숙원인 감차보상 현실화를 이루어 재산권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차량구입 시 부가세 면제 연장 ▲LPG 택시 중고차 일반인 판매 허용 ▲유가보조금 지급 3년 연장 ▲택시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을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업권 보호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항상 조합원들이 우선시 되는 조합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돌식 이사장



조합원 여러분 2016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조합원여러분들의 성원과 단합으로 택시업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개인택시 차량구입에 따른 부가세 면제 2년 연장과 택시차량 5년 경과후 일반인 양도가, 차량등록시 취득세감면 3년 연장 등을 이뤄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택시업계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기에 이에 안주하지 않고 2016년 새해에는 택시감차보상제 시행과 예산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택시요금 현실화와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조합원이 편안하고 안정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6년 새해에는 조합원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상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호충 이사장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이하여 조합원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계속되는 국내·외 불황의 여파로 인하여 내수경기가 침체되면서 우리업계도 많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경제분야 업무계획에서는 불황을 타파하고자 수출경쟁력 회복에 가장 큰 무게를 두면서 내수경기 부양을 다른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회복이 희망적이지만은 않은 현실입니다. 그나마 우리 업계는 택시 총량제에 따른 자율감차제가 시행되면서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이 작은 희망이라면 희망일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업계는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더욱 더 단합을 하여야만 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우리조합 임·직원들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치헌 이사장



존경하는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희망찬 병신년(丙申年)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아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길 기원합니다.

현재 택시업계의 최우선 과제인 감차사업은 전국적으로 담보 상태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결국 사업자 출연금이 문제입니다. 사업자 출연금을 국고에서 보조받아 감차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 해가 갈수록 택시업계에는 과잉주차, 대리운전, 렌트카, 불법유상운송업 등 많은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날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업권을 보호하기는 힘듭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합심하여 다가올 위기를 극복하고 올해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택시업계가 더욱 활력이 넘치는 보람찬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오흥렬 이사장



지난해 자동차보험 시장은 손해율 증가와 영업이익 감소로 힘겨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올해도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자동차 운행대수 증가로 인해 자동차보험 시장의 손해율은 연초부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공제조합은 경영수지 안정화를 위해 최대의 과업이자 목표로 선정하여, 경영구조 개선과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조합의 운영경비를 절감하는 한편,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사고감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공제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조합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 인력관리에 보다 역점을 두어 직원의 업무능력 및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의 내실을 튼튼히 해 공제조합의 대외 신뢰도 및 경쟁력을 한껏 끌어올리는 뜻깊은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조합을 가다

조합원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조합 추진 이연수 이사장 취임, “조합원이 행복한 조합 만들겠다”



▲ 서울개인택시조합 18대 이연수 이사장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서울시의회 박기열 위원장을 찾아 그동안 산적해있는 개인택시 업권 향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릴레이식으로 펼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18대 이사장에 당선한 이연수 이사장이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그동안 밀려있던 개인택시 업권향상을 위한 정책 활동에 나섰다.

이연수 이사장은 서울시의원들을 만나 택시카드 수수료의 인하를 촉구해 소액이지만 성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 중, 택시정책을 추진해온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택시관련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택시진입, 개인택시부가가치세의 면세 상향조정, 택시의 다양한 연료 확보를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택시화를 요청했다.

이연수 이사장은 ‘조합원이 행복한 복지조합 추진’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조합 충전사업의 법인화 추진과 상호 공제의 통합운영을 제시한 상태다.

◆ 카드수수료 상향조정

이연수 이사장은 임기 시작 전부터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때 택시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의 면제 기준의 상향 조정을 촉구해 왔다.

카드결제수수료는 영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사업자들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5500원 이하의 요금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택시요금의 카드 결제율이 현금 결제율을 넘어서면서 서울시 보조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졌다.

2007년 결제기 도입당시에는 카드 결제율이 3.5%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연간 카드결제금액이 약 2조원에 달

할 정도로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서울시의회 신언근 예결위원장 및 박기열 교통위원장을 면담하고 2016년 수수료의 인하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조합은 올해는 힘들겠지만 카드수수료를 점진적으로 1만원까지 상향시켜 나갈 것이다.

◆ 릴레이식 정책간담회 실시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업권개선을 위한 정책 실무 릴레이 간담회를 추진해 왔다. 그동안 개인택시 업권 향상을 위해 정책을 펼쳐왔던 국회의원 또는 서울시의회 교통위 소속 의원들을 계속해서 만난 것이다.

총선시기를 맞아 정치인들 입장에서 개인택시 조직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우리 조합 입장에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정책들을 각 정당 주요 정치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실어 주는 자리를 만들었다.

더불어 민주당 정창래 의원을 찾아 개인택시사업 부가가치세 면세기준의 상향조정을 건의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에게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통행 허용 건의서를 제출했다.

전병헌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오산 IC간 버스 전용차로에 택시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책안으로 내놓았다고 밝히고 국회에 남아 있는 동안 반드시 경부고속도로 전용차로 진입이 가능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전문위원과의 면담도 주선했다.

새누리당 진영 의원에게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인택

시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재선이 될 경우 즉시 사업 검토에 나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 불법 콜버스 퇴출

자가용으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불법 우버가 물러나지 이번에는 전세버스를 이용해 택시처럼 영업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 우리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 조합은 서울시 공문을 통해 전세버스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운송하며 운임을 받는 행위에 대해 명백한 ‘불법유상운송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제4조(면허 등)1항 등은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서울조합은 지도팀 단속차량을 이용해 불법버스 운행 현장을 카메라로 담는 등 불법운행 증거 확보에 나서도록 지시해 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다.

◆ 충전소 사업의 법인화 추진

지난 1월 13일 개최한 대의원회에서 5만 조합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복지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첫 사업 구상으로 조합 충전소의 법인화 추진을 조합원들께 선언했다. 조합원이 주인인 1호 충전소가 곧 탄생하는 마당에 더 이상 임대형식이 아니라 조합원이 직접 출자해 우리 조합 충전소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조합원들에게 직접 복지적 개념의 이익 창출을 만들어줘야 한다.

조합원이 직접 출자하는 충전소로 법인화 할 경우 조합원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것이고 경쟁력 있는 시내 중심의 충전소도 인수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우리 조합은 조합의 구조조정을 적극 검토 중이다.

조합 구조조정과 함께 충전사업 법인 추진을 통해 얻어질 성과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조합은 집행부가 구성되는 대로 조합 복지법인화 사업을 위한 준비팀(추진 위원회)을 구성해 심도 있는 사업구상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선거규정 개정

서울조합은 지난 해 18대 이사장 선거에서 이사장 당선자가 결정됐지만 다시 재선거 과정을 밟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법원의 판단이 나고서야 재선거 진행이 중단되었다.

18대 임기 첫 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들이 잘못된

이사장 재선거 집중 성토로 회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대의원들은 재선거로 지출된 선거비용에 대해 당선자에게 돌려줘야할 등록비용을 왜 또 다른 재선거 비용에 지출을 하나며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진상조사위 활동을

통해 책임져야 할 사람을 반드시 가려내 책임을 묻자고 주장했다.

어느 운수단체도 선거법은 비슷하다. 이제 선거가 끝나면 우선 결과를 인정하고 승복할 수 없는 부분은 차후에 이의신청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꿔야한다.

조합은 조합충전소 법인화, 조합 구조조정 및 선거 관리 규정의 개정 등 이사회 구성 후 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관개정과 규정의 변경을 심도 있게 토론할 계획이다.

(글·김관술)

서울조합 발전을 이끄는 임원진



송일섭 부이사장



박종갑 전무이사



김영수 이사



김정운 이사



백철기 이사



이광형 이사



이대성 이사



이은수 이사



임인택 이사



장원기 이사



한명석 이사



오흥준 감사



홍진규 감사



천영호 강남지부장



이성민 강동지부장



강우풍 강북지부장



공병선 강서지부장



정병호 관악지부장



양만승 남서지부장



전병돌 노원지부장



이춘호 도봉지부장



박종한 동부지부장



김인수 서대문지부장



박정래 성북지부장



한경희 송파지부장



김인호 양천지부장



최용식 영동지부장



이길만 용마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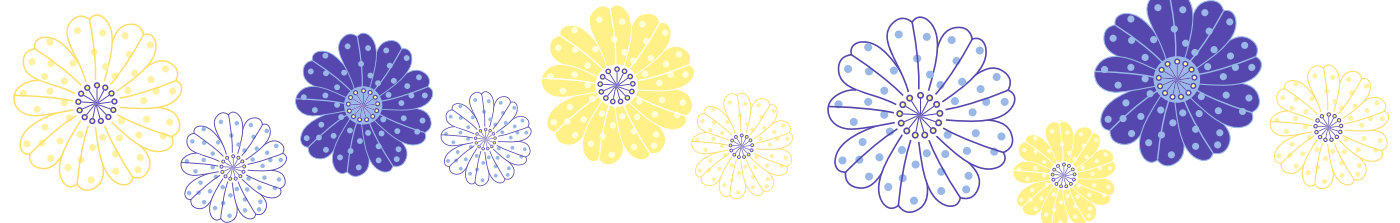
이경주 은평지부장



남궁용선 중랑지부장



김희봉 중앙지부장



지부
탐방

경북조합 포항지부

사무용품비 아껴 1820여 조합원 지부비 감면

임성규 지부장... 투명한 지부운영으로 복지지부 만들터



▲ 지부장 취임식에 축하화환 대신 쌀과 라면을 받아 이강덕 포항시장(왼쪽)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는 임성규 지부장(오른쪽).



▲ 하루에 350만원 동전환전서비스로 충전 조합원에 다가가 충전소 이용 참여율 93%까지 높은 복지충전소.

“깨끗하고 투명한 지부운영은 1820명의 조합원에 대한 의무입니다. 또한 조합원의 살림을 맡은 지부는 조합원의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무한 책임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2015년 1월 1일 제12대 포항시 지부장으로 취임, 지부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도입하기 위해 눈코 뜰새 없이 1년을 보냈다는 임성규 지부장은 조합원에 대한 복지 확대를 첫 번째로 꼽는다.

포항시 지부는 경북도 조합 23개 시·군지부중 조합원이 가장 많은 지부다. 지부사무실은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형산강변 도로를 끼고 자리잡고 있다.

2200평이나 되는 거대한 대지에 사무실동과 복지충전소, 정비공장, 부품판매장, 미터기 검정소, 터널식 세차장, 복지식당, 휴게실, 샤워실, 이발소까지 조합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한군데 모여있어 조합원들은 무한한 복지를 누리는 복지지부다.

◆ 경영혁신

지부 경영혁신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임성규 지부장은 2015년 1월 1일 취임식에서 받은 축하화환 대신 쌀과 라면을 받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포항시장에게 전달하는 선행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맨 먼저 손을 댄 것은 방만한 지부 살림의 쓰임새에서 군살을 빼는 작업이었다.

지부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에서 시작해 음료수, 세차장 소모품까지 알뜰구매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다. 필요할 때마다 소규모로 사는 소모품을 한달 단위 또는 몇 개월 단위로 묶어 도매가격으로 구매하면서 10~20%씩 절감하고, 술선택 지부장 관공비도 절약해 지부운영비를 줄였다. 3개월동안 계획 구매로 절약하다보니 한달에 540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절약한 금액으로 1820명이 내는 지부 조합비를 매월 2만20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인하였다.

조합원의 지부조합비를 매달 3000원씩 인하해준다보니 조합원이 매달 LPG를 충전하면서 6000씩을 넣고 지부조합비 1만9000원, 도조합비 5000원을 면제받는 기준을 4700로 하향 조정하는 바람에 덤의 효과가 발생, 충전할 때 받는 0당 40원 할인 금액이 5200여원을 더 받는 작은 복지가 생겼다.

또한 전 집행부는 콜회원 600명에게 월회비로 4만5000원씩을 받고도 콜장비를 교체시 36만원씩을 받아 부담이 컸다.

현 집행부는 730명의 회원으로부터 월회비를 3만8000원으로 인하해주면서도 콜장비 교체는 업체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설치해주었다.

이밖에도 2012년 9월 1820명 조합원의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면서 카드정산사로부터 지원받지 못했다. 현 집행부는 지난해 6월부터는 택시카드 단말기와 모뎀을 교체하면서 정산사로부터 홍보비와 설치비 지원 명목으로 대당 20~22만원을 지원받아 전 조합원이 혜택을 받고 있다.



▲ LPG안전관리 및 사업법 입법에 협조해준 포항 북구 이병석 국회의원, 남구 박명재 국회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지부임원들.

◆ 복지충전소 조합원이 합심경영

1800여명이 이용하는 포항지부 복지충전소는 시내 변두리에 위치해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 크게 불편하다. 그런데도 조합원의 이용 참여율은 93%에 달한다.

지부는 조합원의 참여율이 높이기 위해 이용편의시설을 다양하게 갖추고 지부 방문을 유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중 가격보다 0당 40원씩 인센티브를 지급, 충전소 수익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영을 펴고 있다.

지부 복지충전소는 조합원들 동전 환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3대의 동전교환기를 설치해놓고 100원짜리와 500원짜리 동전을 원하는 양만큼 환전해준다. 지부는 하루에 필요한 350만원씩의 동전을 환전해주기 위해 항상 700만원 정도 동전을 비치하는 섬세한 준비를 한다.

연매출이 5억6000만원을 올리는 지부의 부품매장은 차량별로 160여종의 부품을 갖추고 시중가격보다 20~30% 싼 값에 판매하므로 더 조합원들의 운송경비 절감에 기여한다.

포항지부는 자동차 3대가 동시에 세차할 수 있는 터널식 세차기를 E1회사로부터 무상임대하여 조합원들이 세차비 걱정없이 항상 세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지부에서는 1820명의 조합원이 교통봉사 ▲독거노인 관광, 장애인 무료수송과 나들의 실시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 ▲포항시 기관행사 때 차량지원 활동 등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맞이콜을 운영,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넓혀간다.

임성규 지부장과 임원들은 어떤 기업인 못지않게 치열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지부 이미지를 복지 지부로 탈바꿈시켰다.

(글·김관술)



강원조합 속초지부

일반인 판매 끌어들이며 복지 충전소 성공 경영 조합원에게 1년에 100만원씩 배당금 지급

800평의 텃밭에서 농사짓는 여유로움 누리요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속초지부
최정수 지부장

강원조합 속초시 지부는 전 조합원이 383명으로 LPG충전소 운영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인데도 흑자 충전소를 경영하는 복지지부로 꼽힌다.

조합 직영 충전소의 경영 채산성을 맞추려면 LPG를 자체 소비하는 조합원 숫자가 1000명은 돼야한다.

하지만 속초지부 조합원들에게는 불리한 입지조건은 장애가 되지 않았다.

조합원 숫자가 적으면 일반인 고객 판매로 채우면 된다는 계산을 믿었기 때문이다.

속초시 장사동 395번지에 자리잡은 속초지부는 2500평의 넓은 대지를 갖고 있다.

더구나 속초시와 고성군 통일전망대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변에 위치한 부지를 이용하면 LPG 충전소는 따는 당상이었다.

처음부터 충전소 경영을 계획하고 지부사무실은 도로 안쪽에 배치하고 도로 앞쪽에는 충전소를 배치했다.

지부 조합원이 현재는 383명이나 되지만 지부가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나누어져 사실상 조합은 230명 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충전소를 계획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형편인데도 추진에 착수했다.

조합원 230명중 복지충전소 설립에 참여한 조합원은 170명이었다. 170명의 조합원은 한사람이 800만원씩을 출자하고 부족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LPG 공급회사로부터 빌려서 채웠다.

이렇게 해서 건축된 충전소 운영은 조합원이 230여명 밖에 되지 않아 일반고객을 끌어들이어도 운영이 힘들었다.

그러다 본격적인 흑자경영은 2013년부터 비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하면서부터였다.

속초지부 복지충전소는 조합원이 소비하는 LPG가 연간 30억원이다. 또한 일반고객이 올리는 매출도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해 1년에 60억원을 판매한다.

속초지부가 한지붕 한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복지충전소도 흑자경영을 실



▲ 속초시로부터 건축지원비 지원을 받아 3층으로 증축한 지부사무실.

현, 1년에 2회로 나누어 주주조합원 한사람에게 50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이익금을 분배한다.

“조합원의 단결은 조합발전의 에너지입니다. 2009년 10월 12대지부장에 취임하면서부터 바로 비조합원의 조합가입을 추진하기 시작해 2014년에 완성됐는데 조합발전이 급진전했습니다”.

비조합원의 조합가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최정수 지부장의 말이다.

◆ 다양한 복지

7년전에 강원도와 속초시로부터 3억원의 지부사무실 증축 예산을 받고도 지부가 양분되어 놓쳐버린 속초지부는 조합

원이 하나로 단합하면서 발전에 날개를 달았다.

2013년과 2014년 두차례 속초시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받아 2층사무실을 3층으로 증축, 조합원 숙원인 휴게실과 체력단련실, 콜센터 등을 만들었다.

휠터, 라이닝, 오일 등 소모품을 싼값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직영정비 공장에서는 차량 수리비를 시중가격의 50%를 받고 있다.

휴조때는 지부에 나와 당구를 치면서 휴식을 즐기고 지부대지 2500평 중 유휴대지 800여평은 4개조가 나누어 텃밭 농사를 짓는 농촌 생활의 여유로움을 속초 조합원들은 즐긴다.

(글·김관술)



▲ 지부장실 벽면에는 지부소속 조합원의 사진을 붙여놓고 지부와 조합원간의 친밀도를 높인다.



▲ 전체 매출의 50%를 일반인 고객에 판매하는 복지충전소.

우리조합 NEWS

연합회 회장단신년 첫 회의 개최 올 추진 현안 선정, 해결 방안 논의



▲ 연합회 회장단 회의가 1월 18일 열렸다. 개인택시연료부가세 감면 등 현안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했다.

연합회(회장 유병우)는 1월 18일 새해 첫회 회장단(부회장 이연수:서울조합 이사장, 부회장 박권수:부산조합 이사장, 부회장 서돌식:경남조합 이사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유병우 회장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연료부담은 다소 완화 되었으나 지나친 유가하락, 중국증시 폭락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수부진으로 자칫 택시업계에도 승객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하였다.

또한 금년에는 20대 총선이 있는 해이므로 이사장님들이 지역활동을 강화하여 개인택시연료부가세 감면, 개인택시 차령제도 개선, 택시감차보상제도 개선 등 업계 현안문제를 적극 홍보하여 정책 및 공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업계현안문제 해결의 전기가 되도록 하자고 하였다.

이어 부회장단은 의견을 공감하고 회장을 중심으로 뭉쳐 한단계 도약하는 개인택시가 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결의했다.

연합회 제1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 성료

이연수 서울조합이사장 이사 및 부회장으로, 백형선 울산조합이사장 연합회 이사 선임



▲ 유병우회장은 2016년 첫 이사회를 열고 16만 4천여명의 조합원에 대한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우리 연합회(회장 : 유병우)는 병신년 새해 1월 6일 제1회 이사회 및 임시 총회를 개최하였다. 유병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한해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연합회 임·직원을 비롯하여 16개 시·도조합 이사장님의 열정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치하한 후 금년에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16만 4천여명의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자고 말하여 이사장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서 연합회는 이연수 신임 서울조합 이사장을, 연합회 이사 및 부회장으로 백

형선 신임 울산조합 이사장을 연합회 이사로 만장일치 선임했다. 부회장으로 선임된 이연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연합회를 보니 마음 든든하다며 회장님을 중심으로 더욱 단합해 조합원에게 봉사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연합회를 만들어 가자고 했다.

이어서 백형선 이사장은 상당기간 야인으로 있으면서 객관적 시각으로 연합회를 바라본 결과, 그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했다며 오직 조합원과 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제평화언론대상 대민봉사 공헌 특별대상 서울 중랑지구 이인성 지부장 수상



▲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서비스 개선으로 봉사가 더 되게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힌 이인성 지부장.

지난해 12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2015년 국제평화언론대상 대민봉사 공헌 특별대상에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중랑지구 이인성 지부장이 수상했다. (사)한국언론사협회가 주관하는 본 상

은 평화를 사랑하고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업무를 통해 맡은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된 분들과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제8회 교통문화발전대회 국민포장’ 속초지구 서용철조합원 수상

개인택시 속초지구 서용철조합원(모범운전자회 속초지회회장)이 지난해 열린 ‘제8회 교통문화 발전대회’에서 정부로부터 ‘국민포장’을 받았다.

속초시에서 모범운전자로 활동하고 있는 서 지회장은 지역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통신원으로 일하면서 등·하교 시간에는 8년동안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수신호를 하면서 학생들의 안전 등·하교에 헌신했다.

서 지회장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도 불량 시설물이나 교통표지판을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16년동안 안전과 봉사를 앞세워 운전대를 잡고 있는 서지회장은 “작은 시설물 부실이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오는 경우를 경험했다”며 “시설물 안전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 지회장은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 이웃 사랑과 나눔의 실천으로 봉사자에게 주는 영예의

인증서를 3년 연속 수상했다. 그는 속초시 자원봉사왕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지극한 효심으로 효행상을 받기도 했다.



www.klpg.or.kr

깨끗한 내일을 위해 부르릉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청정 에너지
더 힘찬 자동차를 만드는 파워 에너지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그린 에너지
우리에게는 LPG가 있습니다

Clean Energy, Clean Tomorrow

 **대한LPG협회**

2015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1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일몰기간 연장

연합회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일몰기간을 연장하여 현행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아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상진의원, 나성린의원 및 김관영의원 등에 법률안 발의를 요청하였던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발의	주요 내용
나성린의원 (11인) (2015. 2. 24)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자동차 부가가치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18년까지 3년간 연장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 (12인) (2015. 6. 16)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11인) (2015. 8. 21)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연합회는 국회, 새누리당, 기재부 등에 우리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정	추진 사항
2015.1.2	(재)나성린 기획재정위원회위원 방문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일몰 연장 입법발의 요청
2015.6.10	(재) 신상진의원에게 개인택시차량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요청
2015.7.10	기획재정부에게 개인택시 차량부가가치세 면제 탄원서 발송
2015.7.20	(민)김관영의원에게 개인택시 차량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입법발의 요청
2015.8.19	개인택시운송사업용차량 부가가치세 면제기간 연장 건의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25인)에게 건의
2015.9.9	(재) 정책위의장(김정훈) 간담회시 건의
2015.9.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원 면담 및 간담회 요청
2015.9.25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탄원서 제출
2015.1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 들에게 일몰 연장 건의서 제출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여·야 합의)이 통과 되었다.

일정	추진 사항
2015.11.17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3차 조세소위원회 상정 및 심사
2015.11.18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 상정 및 심사
2015.11.19	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 상정 및 심사
2015.11.23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6차 조세소위원회 상정 및 심사
2015.12.2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통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여·야 합의)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다음과 같이 공포(15. 12. 15)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현대카드M-개인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위한 경제적인 자동차생활카드



연회비
유류 국내전용 면제
일반 국내전용 5,000원(초년도 정상 부과, 차년도 이후 면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서비스

LPG 충전 시 리터당 239원 면세 및 보조금 혜택

- LPG 리터 측정 기준은 국토부, 국세청 기준
- 일 4회 한도
- 부제일 이용건, 1회 충전 한도량 72리터 초과 시 지급 거절
- 충전 회차 1시간 이하건 서비스 제공 불가
- 보조금 혜택 기준은 국토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SK충전소에서 LPG 충전 시 1% M포인트 적립

세이브-오토(선지급 포인트 서비스)

- 현대·기아차 구매 시 30만원까지 선포인트 받아 사용하고 매달 M포인트로 상환하는 차량 구매 프로그램(만기 종료 시 잔액은 익월 일시 청구)

종합건강검진 우대서비스

- 예약 시 40~60% 할인
- 전국 130개 이상 건강검진센터 예약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홈페이지 내 상품 설명 및 약관 참고
- 카드 신청은 전국 시·도 조합 실무 담당자에게 문의
- 카드 이용금액 연체 시 23.5~29.0%의 연체이자율 적용

M포인트 적립 및 사용

모든 가맹점에서 0.5~2% M포인트 적립

- 세이브-오토(선지급 포인트 서비스) 및 신차 구매 시 별도 적립률 적용 (세이브-오토 이용 시 1,000원당 20 M포인트 적립)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연회비, 제수수료, 이자, 지방세·국세 등 세금 납부액, 도시가스 요금, 대학·대학원 등록금 납부 결제건, 자동납부서비스 이용수수료, 당사의 모든 할인서비스 및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적립 제외

현대·기아차 신차 구매 시 200만 M포인트까지 사용

- 보유하고 있는 현대카드 포인트를 통합하여 1인당 5년간 200만 M포인트까지 사용 가능
- M포인트+세이브-오토 포인트+통장포인트+가족 M포인트+S카드 오토 포인트 +BLUEmembers 포인트 통합 한도
- M포인트 사용은 구매 이전에 적립된 M포인트에 한하며, 해당 차량 구매로 적립된 포인트 사용 불가
- BLUEmembers 포인트는 현대차 구매 시 사용 가능하며, 통합 한도에 포함
- KIA RED MEMBERS 포인트(구 Qmembers 포인트)는 기아차 구매 시 사용 가능하며, 통합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준법감시심의필 제150623-150119호 (2015.07.01)

2 LPG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일몰기간 연장

■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3년씩 연장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찬열 의원 및 정부안이 각각 발의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발의	주요 내용
이찬열의원 (10인) (2014. 12. 26)	▲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경감제도의 일몰 기한을 2018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택시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부 (2015. 9. 11)	▲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일정	추진 사항
2015.10.20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 및 조세소위원회 상정 및 심사
2015.11.23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6차 조세소위원회 상정 및 심사
2015.12.2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통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정부제출)

■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다음과 같이 공포('15. 12. 15)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의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일몰기간 연장

■ 국토교통부는 여객 및 화물 수요 감소, 정부의 물가안정 우선정책(운임요금 인상 억제) 및 지속적인 유류비 대폭 인상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15. 12. 14)를 거쳐 공포('15. 12. 30)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5. 12. 31)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 연합회는 국토교통부 등에 우리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정	추진 사항
2015.4.24	운수7개단체 유가보조금 계속지급 관련 대책회의
2015.10.27	여·야 정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공동 건의서 제출
2015.5.20	운수7개 단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 면담
2015.10.21	여·야 정당,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에 공동 건의서 제출
2015.11.18	운수 7단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 면담
2015.12.1	운수 7단체 공동 건의서 제출

4 개인택시 차량 구입 시 취득세 일몰기간 연장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자동차취득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토록 하기 위하여 정부 및 이찬열의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발의	주요 내용
이찬열의원 (10인) (2015. 1. 9)	▲ 2018년 12월 31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자동차·천연가스버스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정부 (2015. 10. 01)	▲ 여객운송사업자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

■ 연합회는 국회, 새누리당, 행정자치부 등에 우리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정	추진 사항
2015.1.4	(민)이찬열의원실 방문 차량구입에 따른 취득세 일몰기간 연장 건의
2015.4.10	개인택시 차량 구입시 취득세 일몰연장 건의서 제출
2015.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안전행정위원회 건의
2015.9.20	행정자치부에 취득세 50% 감면 건의
2015.10.1	정부에서 일몰기간 2018년까지 3년 연장안 제출
2015.11.10	안전행정위원들에게 건의서 제출

■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었다.

일정	추진 사항
2015.11.23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 회부
2015.11.27	제337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제6차 전체회의 의결
2015.11.28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2015.12.9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 통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자치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다음과 같이 공포('15. 12. 09)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객운송사업자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취득세 감면 (50%)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5 택시 LPG 중고 차량 일반인에게 판매 허용

■ 연합회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거 사용제한을 받는 LPG 차량임에도 장애인 및 유공자 차량은 5년경과 후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택시는 제외되고 있어 저가로 해외로 수출하는 등 재산상 손실이 심각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찬열의원, 최봉홍의원 등에 법률안 발의를 요청하였던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발의	주요 내용
이찬열의원 (10인) (2015. 06. 22)	▲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최봉홍의원 (11인) (2015. 10. 13)	▲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택시와 대 여자자동차는 등록 후 4년이 경과하면 일반인 구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운수사업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연합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우리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정	추진 사항
2015.10.06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위원들에게 건의
2015.10.12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원장(홍영표의원) 지역구 사무실 항의 방문
2015.11.11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원장(홍영표의원)과 택시업계 간담회
2015.11.16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정책실장과 택시업계 간담회
2015.11.17	새누리당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택시업계 간담회
2015.11.19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방문
2015.11.20	법제사법위원장과 간담회
2015.11.30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건의서 제출

국회에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 되었다.

일정	추진사항
2015.10.28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 상정 및 법률안소위 회부
2015.11.19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률안 소위 의결
2015.11.23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의결
2015.12.8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2015.12.9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 통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16. 01. 09)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6 택시 콜서비스 재정지원 근거 마련

연합회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택시 호출 서비스 수수료 등의 운영비 지원을 삭감하거나 중단하고 있어, 박수현의원에게 입법발의를 요청한 결과, 박수현의원 등 10인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발의	주요 내용
박수현의원 대표발의(10인) (2015. 05. 1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사업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운영 사업을 추가하여 택시 호출 서비스 수수료 등의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 이용촉진을 통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 ‘15. 05. 11)에 대한 수정안이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5. 06. 17) 및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통과(‘15. 06. 18), 제33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15. 06. 18)하여 공포(‘15. 08. 11)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사업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운영 사업을 추가하여 택시 호출 서비스 수수료 등의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 이용촉진을 통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7 신규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상속 허용 근거 마련 등

국회에 제출된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상속 허용 관련 법률안 3건(‘13. 2. 14. 함진규의원 등 10인, ‘13. 5. 6. 이장우의원 등 17인, ‘13. 6. 25. 박완주의원 등 10인)의 법률안, 불법택시영업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안 1건(‘14. 6. 30. 이찬열의원 등 10), 렌터카와 우버의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 관련 법률안 3건(‘14. 10. 13. 이노근의원 등 10인, ‘14. 10. 27. 한정애의원 등 11인, ‘14. 10. 28. 김성태의원 등 11인)의 법률안을 통합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15. 4. 28) 및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15. 5. 29)를 각각 통과하여 공포(‘15. 6. 22)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 ▲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
- ▲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가용 유상운송의 알선, 자동차대여사업자 외의 자의 렌터카 유상운송의 알선, 자동차대여사업자 외의 자의 렌터카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등 각종 유사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무면허 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8 고급택시 도입 적극 추진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관광객 및 해외 바이어 등에게 차별화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형 택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운임·요금을 정하여 시·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범위에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5. 04. 09)를 거쳐 공포(‘15. 09. 15)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운임·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국토교통부는 고급형 택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표시 및 설비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5. 04. 09)를 거쳐 공포(‘15. 09. 21)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택시운송사업의 구분기준 변경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고려하여 배기량만으로 구분하던 택시운송사업의 종류를 배기량 또는 차량의 크기로 구분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대형화 및 연료 효율 증가 등을 고려하여 고급형 택시의 배기량을 3000cc 이상에서 2800cc 이상으로 변경함
- ▲ 고급형 택시의 표시 의무 등 완화
고급형 택시의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자동차의 바깥쪽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자동차 종류, 관할관청 등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호출설비 및 요금미터기 등의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9 경유택시 도입 적극 추진

연합회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연장으로 현재 경유택시(대형, RV, SUV)로 운행 중인 차량이 차령 만료가 도래되어 대·폐차를 할 경우 배출가스기준의 인증을 받은 차량이 없어 대·폐차가 불가한 실정이며, 정부의 택시종합대책에 포함된 경유택시를 택시업계는 도입하고자 해도 자동차제작사의 영업용 택시 판매 불가로 경유택시 도입 유명무실화 되는 점 등을 환경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경유택시 도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환경부는 택시업계의 건의내용을 상당부분 수용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공포(‘15. 12. 10)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경유택시로 대·폐차 되는 경우에는 10년 또는 160,000km로 할 수 있음

10 승합택시(승차정원 13인승 이하) 도입 적극 추진

연합회는 택시 4단체 공동명의로 승합택시 도입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청와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법제처 심사 중이나 조만간 공포할 예정이다.

2016년도 주요사업

1 택시 제도 개선 및 활성화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대응
 - 택시운임·요금제도(심야 할증시간대 확대 및 요일별 할증을 차등 적용 등)
 -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희망택시, 통학택시, 마을택시 등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 모범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다만,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양도·양수, 정년제, 운행시간 제한 등)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적극 대응
 - 택시운임·요금 인상주기를 2년으로 정례화를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
 - 각 시·도 소비자 보호 조례의 소비자 정책심의에서 삭제(지방공공요금에서 배제)
- 택시제도 개선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추진

- 불필요한 택시규제 조항 발굴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 추진
- 택시운송사업에 저해 되는 택시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대응
- **대형택시(승차정원 13인승 이하), 고급택시 활성화 적극 유도**
 - 대형택시는 (13인승 이하) 전국 실시 적극 추진(군지역포함)
 - 고급택시 전국 시행에 따른 활성화 방안 강구
- **대여자동차 제도개선 및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 추진**
 - 대여자동차의 가맹사업제도 도입반대
 - 렌터카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대책 강구
- **모바일 콜택시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대책 강구**
 - 택시사업구역 위반 등 불법행위 금지
- **개인택시 차령제도 개선에 적극 대응**
 - 개인택시 차령제도 폐지
 - 현행 차령제도 또는 한계운행거리 확대 중 선택 적용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택시통행 허용**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평일에 운행
- **택시감차보상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 국비지원율 상향조정, 정부예산에 감차보상금 증액 건의
- **택시감차보상계획 실행 실태 파악 및 적극 대응**
 - 사업구역별 실태 파악 등
- **차량청결상태 등 확인점검제도 위탁업무로 전환 추진**
 - 조합과 관할관청이 실시하는 차량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하여 조합의 위탁업무로 추진
- **자가용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적극추진**
 - 대리운전의 자동차 범위를 비사업 승용자동차로 제한
 -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 강화
 - 대리운전자격시험 및 대리운전 교육제도 도입
 - 개인택시사업자의 자가용 대리운전 참여 추진
- **신규개인택시 양도·양수 및 상속허용 관련 실태파악**
 - 신규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허용 관련 자치단체 조례 실태파악 등
- **전국택시 통합콜센터 실태 조사**
 - 통합콜 추진에 따른 한계점 개선
 - 콜사업 안정 및 확장을 위한 대책 마련
 - 현행 브랜드택시 활성화 등

2 세제 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제재 규제 완화**
 - 부제일, 부정수급으로 인한 전액환수, 지급정지 이중처벌 개선
 - 경고규정 및 단계별 지급정지 신설 추진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차량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면제 일몰 연장 추진**
 -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구입 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면제 일몰 연장 추진
- **사업용자동차 자동차세 인상 대책 추진**
 - 자동차세의 단계적 세율 인상('15년 : 50%, '16년 : 75%, '17년 : 100%)에 따른 시행유보 및 인상을 축소 추진
- **택시면세 유류구매카드제 개선**
 - 택시카드제 면세유류(23.39원/ℓ) 지급시 지역별 평균단가 적용에 따른 업체별 유리 발생 등 민원해소 위해 실제단가 적용 추진
 - ※ 택시카드제 유가보조금(197.97원/ℓ)은 평균단가에서 실제단가('15.3월)로 개선
-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 부가가치세 면제로 감차지원 마련
 - 감차 보상 실시로 수입증가효과 기대
- **택시연료(LPG부탄)에 대한 유가 보조금 세제지원 일몰연장 및 연장기간 확대(2~3년)**
 - 유가보조금 197.97/ℓ이 한시적 지원이 됨에 따라 일몰 연장 추진
- **택시연료(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일몰연장**
 - 개별소비세·교육세 중 감면액 23.39/ℓ이 한시적 면제됨에 따라 일몰연장 추진
- **경유택시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추진**
 - 기존 LPG택시차량에서 경유차량으로 전환(대·폐차) 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추진
 - 차량 제조사에 개정된 배출가스보증기간에 맞는 경유택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
 - 유종의 다양화 추진으로 차량의 선택의 폭을 확대 추진

- **LPG(부탄) 할당관세 영세율 일몰기간 연장 추진**
 - 할당관세 영세율(기본관세3%→0%)이 '15.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일몰 연장 추진
- **택시연료(LPG부탄) 가격안정화 추진**
 - 국제가격(CP)과 환율에 의한 가격결정 및 원가내역서 등 공개
 - 국외 LPG공급 독점과 국내수요과점(6개 공급사) 개선을 위한 LPG 수급체계 다변화
 - LPG 가격결정의 투명화와 불합리한 유통구조개선
 - 기타 언론 광고, 정유사 및 공급업체방문 등 대책 활동 강화
- **LPG 공급사에 대한 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 LPG 정유사와의 민사소송 지속 추진
 - 법원이 주관하는 LPG손해배상 입증관련 감정평가연구용역 자료 지원 및 재판부 판결 모니터링
 - 소송의뢰 변호인단과 긴밀 협력체제 구축
- **택시표시등 광고사업 시범운영 실시 추진**
 - 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을 조성
 - 택시표시등 광고 사업을 시범운영하여 전국으로 확산 시 광고수입의 50%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조합원(가족포함)에게 후생 복지 사업실시 추진
- **친환경차량 도입**
 - 플러그인(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 차량 구입에 따른 정부재정지원 적극 추진

3 택시서비스 개선 및 교통안전 생활화

- **교통안전제도 규제 개선**
 - 규제관련 입법안에 대한 운수단체 공동대응
 - 불합리한 현행제도를 검토하여 개선 추진
- **운전 적성정밀검사제도 개선**
 - 특별검사대상자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제도 도입
 - 3년 이상된 일반검사 대상자 면제제도 도입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자료 제출 개선**
 - 자동차검사대행자나 지정정비사업자가 차량소유자를 대신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개인택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정사고시에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택시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부재정지원 및 피해구제제도 확립**
 - 차량의 서비스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장비(영수증발급기, 외국어 동시통역 시스템, 신용카드결제기 등)의 설치 및 운영비 등 재정지원건의
- **교통사고예방활동 및 서비스개선유도**
 - 좌석안전띠 매기 캠페인 적극전개
 - 좌석안전띠 스티커 부착
 - 외국인에 대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금지
 - 정지선 지키기 및 거리질서 확립 캠페인
 - 친절운동전개 및 운전자 제복착용 적극유도
 - 승차거부 행위 금지
- **제조사 차량 결함에 따른 리콜 및 A/S건의 적극추진**
 - 택시차량의 품질 및 안전문제로 인한 분쟁발생시 리콜 등 피해보상을 위한 대응책 강구
-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정부지원 추진**
 - 노화된 영상기록장치 교체비용 지원 건의

4 행사 및 홍보활동 강화

- **단체 활성화**
 - 사기양양을 위한 모범조합원 및 임·직원 포상(창립기념일, 육운의 날, 기타)
 - 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 현황 정보관리시스템 운용방안 개선
- **홍보 및 행사**
 - 연합회 신문제작 배포를 통하여 연합회 사업추진실적 홍보 및 정보제공
 - 매스컴 홍보를 통한 개인택시 이미지개선 홍보활동 강화
 - 자연보호행사 및 체육행사 실시
 - 육운의 날 행사 적극 참여로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교통문화 창달
 -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한 추진사항 등 적극 홍보
- **사회복지사업**
 - 노인정, 고아원, 군경 및 불우이웃돕기

- 정부의 경제대책에 적극 협조
 - 자가용 요일제 운행 적극 동참
 - 사무실 에너지 절약
 - 사무용품 절약 및 재활용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괄표

◎세입

항 목	2016년 예산
세 입	2,030,929,800
○ 회비	1,679,929,800
○ 이월금	350,000,000
○ 기타수입	1,000,000

◎세출

항 목	2016년 예산
세 출	2,030,929,800
1. 사무비	1,040,085,600
○ 인건비	672,791,500
· 급료	346,262,200
· 상여금	206,721,400
· 수당	119,802,900
○ 물건비	367,294,100
· 여비	4,680,000
· 공공요금	12,648,000
· 제세공과금	5,090,000
· 차량유지비	52,440,000
· 수송비	22,300,000
· 수수료 수선비	6,660,000

· 시설관리유지비	36,000,000
· 복리후생비	227,476,100
2. 사업비	774,570,000
○ 물건비	217,920,000
· 여비	50,900,000
· 수송비	111,020,000
· 광고선전비	56,000,000
○ 판공비	289,200,000
· 기관운영판공비	54,000,000
· 특별판공비	163,200,000
· 홍보활동비	72,000,000
○ 이용료	30,000,000
· 수수료	30,000,000
○ 선진화지원비	237,450,000
· 회의비	166,550,000
· 사회복지비	10,000,000
· 포상비	60,900,000
3. 재산취득비	25,000,000
○ 재산취득비	25,000,000
· 재산구입비	25,000,000
4. 분담금	10,800,000
○ 분담금	10,800,000
단체회비분담금	10,800,000
5. 적립금	120,000,000
○ 적립금	120,000,000
퇴직적립금	120,000,000
6. 예비비	60,474,200
○ 예비비	60,474,200
· 예비비	60,474,200

현대카드M-개인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위한 경제적인 자동차생활카드



연회비
유류 국내전용 면제
일반 국내전용 5,000원(초년도 정상 부과, 차년도 이후 면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서비스

LPG 충전 시 리터당 239원 면세 및 보조금 혜택

- LPG 리터 측정 기준은 국토부, 국세청 기준
- 일 4회 한도
- 부제일 이용권, 1회 충전 한도량 72리터 초과 시 지급 거절
- 충전 회차 1시간 이하건 서비스 제공 불가
- 보조금 혜택 기준은 국토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SK충전소에서 LPG 충전 시 1% M포인트 적립

세이브-오토(선지급 포인트 서비스)

- 현대·기아차 구매 시 30만원까지 선포인트 받아 사용하고 매달 M포인트로 상환하는 차량 구매 프로그램(만기 종료 시 잔액은 익월 일시 청구)

종합건강검진 우대서비스

- 예약 시 40~60% 할인
- 전국 130개 이상 건강검진센터 예약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홈페이지 내 상품 설명 및 약관 참고
- 카드 신청은 전국 시·도 조합 실무 담당자에게 문의
- 카드 이용금액 연체 시 23.5~29.0%의 연체이자율 적용

M포인트 적립 및 사용

모든 가맹점에서 0.5~2% M포인트 적립

- 세이브-오토(선지급 포인트 서비스) 및 신차 구매 시 별도 적립률 적용 (세이브-오토 이용 시 1,000원당 20 M포인트 적립)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연회비, 제수수료, 이자, 지방세·국세 등 세금 납부액, 도시가스 요금, 대학·대학원 등록금 납부 결제건, 자동납부서비스 이용수수료, 당사의 모든 할인서비스 및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적립 제외

현대·기아차 신차 구매 시 200만 M포인트까지 사용

- 보유하고 있는 현대카드 포인트를 통합하여 1인당 5년간 200만 M포인트까지 사용 가능
- M포인트+세이브-오토 포인트+통장포인트+가족 M포인트+5카드 오토 포인트 +BLUEmembers 포인트 통합 한도
- M포인트 사용은 구매 이전에 적립된 M포인트에 한하며, 해당 차량 구매로 적립된 포인트 사용 불가
- BLUEmembers 포인트는 현대차 구매 시 사용 가능하며, 통합 한도에 포함
- KIA RED MEMBERS 포인트(구 Qmembers 포인트)는 기아차 구매 시 사용 가능하며, 통합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준법감시심의필 제150623-150119호 (2015.07.01)

공제경쟁력을 말한다

2015 개인택시공제조합 대물보상중급과정 교육

공제조합 특성과 실무 내용 반영한 맞춤형 교육 실시

지난해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이천에 자리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는 개인택시공제조합 대물보상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물보상중급과정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보상 기초교육 및 대물보상초급과정을 이수한 중견직원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모인 19명의 직원들이 참석하여 진행됐다.

특히 동교육은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요청으로 보험개발원 측에서 별도로 개설한 교육과정으로써 공제조합의 특성과 실무내용을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실시된 대물보상중급과정의 교육 과목으로는 수리비 통계분석, 최신 메카니즘 보상포인트, 휠얼라인먼트 정비 실무, 정비요금 및 정비공장 관리방안, 견적실습, 그룹토의, 견적강평, 손해사정 오류사례 해설, C/S교육의 과목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교육생들에게 직접 과업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교육생들의 실습 및 참여로써 각 과목의 교육이 진행되어 참가 직원들의 참여도 및 집중도는 물론 교육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교육과정 중 최신메카니즘 보상

포인트 및 휠얼라인먼트 정비 실무의 교육과목에서는 교육생들이 직접 자동차를 분해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최신 자동차의 메카니즘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자동차 손상진단 및 이에 적절한 보상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손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이해하는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또한 견적실습, 견적강평, 손해사정 오류사례 해설 등의 교육과목을 통하여 대물보상 담당 직원들이 실무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되었으며 이에 대한 교육생들의 견적 및 손해사정 실습과 각자의 실습내용을 서로 비교해보고 토의하는 참여교육이 진행되어 참가한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과정의 마지막 강의는 CS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공제조합의 보상직원들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해자, 상대 보험사 직원, 자동차정비소, 병원 등 관련된 사람들 및 기관과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현재 보험사 및 공제조합들이 보상실무과정에서 생기는 분쟁과 민원에 대하여 관리기관인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 개인택시공제조합 대물보상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대물보상중급과정 교육이 진행됐다.

의 감독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개인택시공제조합도 대고객 만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매 교육마다 고객만족 서비스 교육인 CS교육과정을 별도 개설하여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도 전문 강사를 공제조합에서 직접 섭외하여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전문 CS교육이 어김없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손보사 및 여타 공제조합과의 서비스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

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세심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대물보상중급과정 교육을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의 2015년도 교육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다. 교육현장을 하나하나 취재하며 공제조합과 직원들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과 열정의 에너지를 2015년 내내 느낄 수 있었다. 올 2016년 한해에도 그들의 변하지 않는 노력과 열정을 기대하며, 개인택시공제조합의 밝은 미래를 그려 본다.



어르신 안전하세요?

어르신 보호
내가 먼저
실천합시다!



주름을 만드는 것은 세월 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있게 하고
우리를 키워낸 사람, 어르신

잠시 기다려 주는 여유와 배려하는 마음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거리를 만듭니다.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가 행복한 세상입니다.



공제조합, 공제 경영개선 회의 개최

16개 시·도지부, 부지부장·센터장 참석

공제조합은 지난해 12월 16일(수) 본부 4층 회의실에서 본부 실장과 전국 16개 지부 부지부장과 센터장 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제 경영 개선을 위한 관리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2015년 11월말 공제 경영수지가 △105억 당기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적자요인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11월말 현재 경영실적 발표, 본부 각 실별 강조 및 전달사항을 시작으로 오후 시간까지 회의가 진행 되었다.

모두 발언에서 연합회장(유병우)은 공제 창립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심기일전의 마음가짐이 필요함을 각별히

당부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공제예산 절감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과 근무기강 확립 및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한 관리자들의 솔선수범과 공제 차원에서 사고예방활동 노력은 물론 국가(지자체,경찰청 등) 차원에서의 예방 노력이 실질적으로 사고예방에 효과 있으므로 그에 대한 건의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지부별로 제출되었던 경영개선 계획서에 대한 논의와 분담금 일괄인상에 대한 필요성, 차량담보 및 대물 무한담보종목에 대한 우려와 개선안이 논의 됐다.

사고예방활동 우수사례에 대한 지



▲ 공제조합은 본부 4층 회의실에서 공제 경영 개선을 위한 관리자 회의를 개최했다.

부간 공유의 필요성과 노사현안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2015년을 끝으로 새해에

는 다시 공제 경영이 정상적으로 개선되어 공제 본연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알찬 경영이 되기를 다짐하며 공제 경영개선 회의가 종료되었다.



▲ 공제조합에서는 경영 개선을 위해 간부 회의를 개최했다.

공제조합 경영 개선을 위한 보상분야 간부회의 열어

수입차량 수리비 등 손해율 감소 실현 다짐

최근 들어 조합원의 사고율 증가로 인하여 공제조합의 경영수지가 악화 되고 있다.

특히 대물 손해율은 110%이상의 손해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근래 들어 수입차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조합원과 수입차와의 사고 또한 증가하고 그로 인하여 수입차량의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고 실정이다.

수입차량의 수리비의 점유율은 2012년 전체수리비의 22%에서 2015년 31%로 급증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제조합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입차량 수리업체 및 수입차량 손해사정 프로그램의 계약 체결을 통한 손해율 감소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제조합에서는 경영 개선을 위하여 2015년 11월, 12월 2차에 걸쳐 간부 회의를 개최했으며 여기서 사고율 감소 및 수입차 관리, 구상금 관리 등의 다양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간부들이 앞장서서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 졸리면 잠시 휴식, 졸음 운전 NO!

✌️ 출발전 앞뒤 안전띠 체크!

✌️ 음주운전 자살행위, 과속운전 살인행위!

건강상식



만성통증, 도수치료로 해소한다

참바른메디컬그룹 '신체 균형을 바로 잡으면 만성통증 해결'

장시간 운전을 하는 택시기사 김모씨(42세)는 얼마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

하루종일 운전을 해야하는 김씨에게 허리통증은 매우 곤혹스러운 일로 다가왔고 통증이 있을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찜질을 사용했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심지어 다리까지 통증이 동반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면서 병원을 찾은 것이다.

인체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척추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 결국 척추 주위의 근육, 관절, 신경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두통, 어깨결림, 팔저림, 허리통증, 목통증, 어깨통증, 골반통증과 같은 다양한 만성통증질환을 불러온다.

이러한 만성통증 질환을 해결하는 도수치료는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고, 비대칭인 척추관절과 골반근육을 맞춰주는 것이 목적이다. 도수치료가 척추관절과 뼈를 부드럽게 누르면서 뒤틀린 골반과 척추를 바로 잡아 주는 것이다.

◆ 허리 통증을 줄이는 도수치료

대부분의 만성통증 환자들은 평소 생활습관과 업무 특성으로 인해 척추나 골반 등 관절이 오랜 시간을 거쳐 변형되어 통증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非)수술요법인 도수치료는 1회 치료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치료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다.

대신, 수술로 보형물을 삽입하거나 정형 교정기를 착용하는 것과 달리 치료 후 바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후유증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도수치료는 1회성 치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10회~20회 까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번 치료받는데 10~30만원이나 하는 진료료를 10회 이상 받기에는 개인부담이 너무나 크다는 지적이 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인정비급여 항목으로 지정하여 개인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였다.

◆ 허리통증 심하면 척추관협착증 의심

허리통증이 심하면 척추관협착증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척추관협착증은 초기에 허리와 다리통증이 주로 발생해 허리디스크와 오인하기 쉬운 척추질환이다.

허리디스크의 경우 허리를 굽힐 때 통증이 나타나는 반면 척추관협착증 환자는 허리를 펼 때 통증을 일으키고 유독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편이다.

또한, 이 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척추관이 눌러 혈액 공급이 차단될 경우 신경이 붓고 하반신 마비, 전신마비 등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강남 척추질환치료 참바른메디컬그룹 이해운 대표원장은 "척추관협착증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환자의 수술 부담을 줄이는 비수술 치료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 중 전문가의 손 기술을 이용해 통증을 개선시키는 도수치료가 있다"라고 전했다.

〈허리건강을 위한 올바른 운전자세〉

장시간 운전을 할 경우 의자 등받이의 각도는 100~110 정도 유지하고, 의자 깊숙이 밀착시켜 앉거나 등받이 쿠션을 받쳐놓는 것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1~2시간마다 갓길이나 휴게소에 잠시 차를 세우고, 스트레칭으로 굳어져 있던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고 저리는 증상이 있을 경우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 및 가족을 위한 통증의학(도수치료) 제휴이벤트



치료비 전액 개인의료 실비보험 100% 적용!!

	A 프로그램	B 프로그램	C 프로그램	D 프로그램
치료내용	단일 관절위주 도수치료	단일 관절위주 바른통증치료 도수치료	척추&관절위주 복합통증치료 도수치료	질환별 제명교정 도수치료
	저주파치료	저주파치료	저주파치료	저주파치료
		체외충격파	체외충격파 고주파치료	체외충격파 고주파치료 비만관리(CRYO-LIPO) 피부도닝(패키지이용시)
총 소요시간	약 30분	약 35~40분	약 60분	약 65~70분
치료비용	10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모든치료비용 본인부담금 5천원 ~ 1만원				

패키지 무료서비스 (10회 이상)	A 프로그램	태반주사, 신데렐라, 백옥주사
	B 프로그램	태반주사, 각테일주사, 고용량비타민, 멀티블루
	C,D 프로그램	태반주사, 각테일주사, 고용량비타민, 멀티블루

월~금요일 AM 9:30 ~ PM 9:30 (야간진료) / 토요일 AM 9:30 ~ PM 3:00 (일요일,공휴일 휴진)

강남점 / 선릉점 / 청담점 / 송파점

예약 및 내원시 운송사업조합 조합원 및 가족 이라고 말씀해주셔야 특별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 2016.01.01~2016.02.29 | 대상: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 및 가족
개인상담 및 예약문의(이지옥) : 02-562-1473 / 010-3846-9922



장거리, 장시간 주행이 많은 TAXI일 수록 견고한 BODY는 필수입니다 2016년형 쏘나타 TAXI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실시한 충돌테스트에서 쏘나타는 **최우수 등급 TSP+**를 받았습니다
신형 쏘나타 택시, 2016년에 안전성으로 또 한번 앞서갑니다



본질로부터
SONATA

최상의 안전성을 위해 | 초고장력강, 핫스탬핑 부품확대로 강해진 BODY



- 7 에어백시스템 • 충격저감시트(압차석) • 사시통합제어시스템(VSM)
- 시트벨트 안전장치 •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편안한 드라이빙을 위해 | 운전자의 움직임에 따른 인공학적 설계



- 조작성이 우수한 스티어링 휠 • 쉽고 감성적인 즐거움을 주도록 설계된 인공학적 실내
- 열선/통풍기능과 4Way 렘버썬포트(운전석 적용) • 7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

안정적 퍼포먼스를 위해 | 동급 최고수준의 R&H 성능을 통한 균형잡힌 주행감성



- 후륜 듀얼로어암 멀티링크 타입 서스펜션 / 전륜 맥퍼슨 스트럿 타입 서스펜션
- 속도감응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 • 언더커버 • 누우2.0LPI엔진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단 콜센터 서비스 060-600-6000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용량 - 2.0 LPI (AT) 복합 : 9.8km/ℓ (도시:8.3km/ℓ, 고속도로:11.7km/ℓ) CO2 배출량: 140g/km 배기량:1,999cc 공차중량: 1,465kg 자동6단(4등급) - 2.0 LPI (MT) 복합 : 10.1km/ℓ (도시:9.2km/ℓ, 고속도로:11.5km/ℓ) CO2 배출량: 132g/km 배기량:1,999cc 공차중량: 1,450kg 수동6단(4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화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점속주행을 합니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라스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가격을 바꾼 거래를 삼행하고 있습니다. **bluehands** 차량관리서비스 bluehands기체관리(유압,파타) 8월내에 불우정량(가시카리스) 1년보증/정비유보(연간서비스)